종교문화학보 제18권 제1호 105-128쪽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1. 6.

도롱뇽을 위한 나라는 없다 : 기후 위기와 불교의 대처

안 필 섭*

목 차

Ⅰ. 꼬리치레도롱뇽
Ⅱ. 천성산 산감
Ⅲ. 마우나로아 관측소
Ⅳ. 탄소발자국과 다크데이터
Ⅴ. 기후 위기의 대처와 거사불교

국문초록

불교나 인도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오염은 인간의 도덕적 오염의 외적인 발현에 지나지 않는다. 도롱뇽 재판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제기한 것도 이제 20여 년이 흘렀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개발 논리를 통한 이익의 창출 욕구는 여전하다. 국지적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제 새롭게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것은 기후 위기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한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또다시 지율스님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만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거친 것 또한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미세한 것으로 그 문제의 주된 흐름이 넘어왔기 때문이다. 이 땅에 불교가 전파된 지 1,650년이 지난 지금, 한국불교는 그 동안 쌓아온 중대한 지혜와 관리 방식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불교의 신행을 주도하는 일반 대중의 저변을 확대하여 인류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주제어 : 도롱뇽, 지율스님, 산감(山監), 마우나 로아(Mauna Loa), 코로나19,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공업(共業), 거사불교, 탄소발자국, 다크데이터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강사
논문접수일 : 2021. 5. 20 논문심사일 : 2021. 5. 25. 게재확정일 : 2021. 6. 10.

Ⅰ. 꼬리치레도롱뇽

2001년 봄, 경남 양산 내원사의 지율스님은 절이 위치한 천성산의 정상까지 올라오는 굴삭기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도롱뇽 재판의 시작이었다. 꼬리치레도롱뇽(Korean clawed salamander)은 성체의 몸길이가 대략 17～19cm 정도로 다른 종에 비해 길이가 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한국고유종인 양서류이다. 1급수의 맑은 물에만 서식하여 청정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은 내원사와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스님)과 함께 2003년 10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13.2km 구간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원고로 그 이름을 올렸다.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부적법 처분을 받았다.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으므로, 따라서 신청인 도롱뇽의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 당시 이 땅에 도롱뇽을 위한 나라는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서식 환경의 존립을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롱뇽은 고속철길을 막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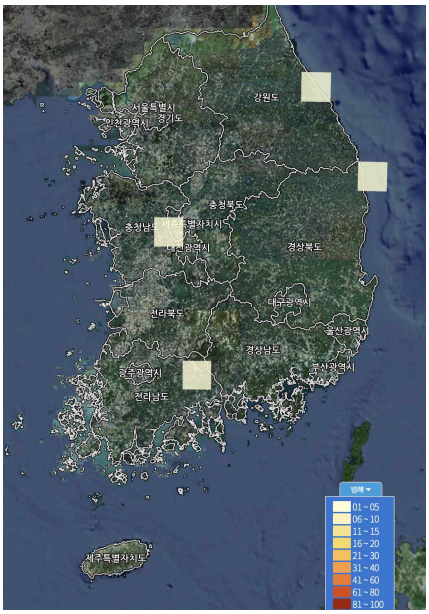
그 이후 천성산 꼬리치레도롱뇽은 잘 지내고 있을까?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의 화엄늪 정밀조사에서는 유생(幼生)을 관찰했을 뿐 성체는 발견하지 못했고, 2014년 정밀조사에서는 그마저도 발견하지 못했다.[1] 하지만 다행인 것은 화엄늪의 다른 동식물의 경우 매번 조사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습지 환경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한 꼬리치레도롱뇽의 모습과 서식지는 다음과 같다.[2]

---

1) "천성산 꼬리치레도롱뇽 어디로 갔을까", 『중앙일보』, 2014년 10월 29일.

2) 그림 1 http://cheonseong.org/1592/ ; 그림 2 https://species.nibr.go.kr/geo/html/ index.do?ktsn=120000164706

〈그림 1〉 꼬리치레도롱뇽



〈그림 2〉 꼬리치레도롱뇽 분포도

최근에는 맹꽁이가 큰 이슈가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2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소송에 패한 원인은 맹꽁이에 있었다.[3] 개발에 앞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구에 맹꽁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맹꽁이 400여 마리를 찾아내어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라고 한다. 유사한 사례는 이밖에도 몇 가지 더 존재한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팔색조와 긴꼬리딱새가 막아섰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산양의 서식지가 발견되어 시작도 하지 못했다. 수도권 지역 개발의 화두인 GTX 사업 역시 파주의 차량기지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천성산 꼬리치레도롱뇽이 우리 사회에 문제의식을 던져준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도롱뇽'으로 상징되는 생태주의적 가치문제가 중심에 놓인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전에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4] 천성산

3) "[참성단] '분당 맹꽁이'의 반격", 『경인일보』, 2021년 2월 17일.

4) 이시윤(2018), 「'두개의 운동'으로서의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종교시민운동 축의 복원과 시민

이 주는 교훈은 20년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경제적 이익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적 행동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는 도롱뇽을 위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 경제라는 몽둥이를 들고 나오지만 빈곤의 직접적인 이유는 부의 균등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는 빈부의 격차를 한없이 높이고 빈부의 계급사회는 많은 부조리를 안고 있습니다.[5]

이제 이 소송의 또 다른 주인공인 도롱뇽의 친구 지율스님에 대해 알아보자.

Ⅱ. 천성산 산감

불교의 총림(叢林)[6]에는 용상방(龍象榜)[7]이라는 것이 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총림인 만큼 각 기능을 수행하는 직책을 두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초기에는 23개의 직명을 기록하였지만, 사찰 기능이나 운영의 형편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그 소임(所任)이 가감되고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대중(大衆)의 잘못을 살펴 시정하는 찰중(察衆)이 있는가 하면, 사찰에 별도의 방앗간이 생기면서 이를 담당하는 마두(磨頭) 소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사찰의 소임 가운데 산감(山監)이라는 직책이 있다. 산감은 목재의 남벌과 도벌을 막고, 산불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는다. 주로 산지에 위치한 사찰의 입지를 생각해보면 산감은 산중사찰에서는 꼭 필요한 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질 일이 없는 사찰의 산감 소임이지만, 그런 산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님이 있으니, 그는 아마도 천성산[8] 산감 지율스님일 것이다.

환경운동과의 관계 분석」,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1호, 171쪽.

5) 지율, "천성산 도롱뇽을 위한 외로운 투쟁", 2005년 6월 22일, 세계여성학대회의 기조강연 중에서, 조은수(2011), 「지율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 『철학사상』 41, 141쪽 재인용.

6) 강원(講院), 선원(禪院), 율원(律院)을 갖춘 종합 도량.

7) 용과 코끼리와 같이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 일정한 소임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중국 당나라 백장(百丈)이 처음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선종의 전래와 함께 채택되었다.

〈그림 3〉 천성산과 그 주변

〈그림 4〉 천성산 화엄늪과 원효봉

지율스님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2년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 1997년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내원사에서 수행하며 산감 소임을 맡았던 지율스님은 2001년 천성산 터널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에 나서게 된다. 2003년 2월 부산광역시청 앞에서의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약 300일에 걸친 단식 농성이 있었다. 같은 해 8월 부산광역시청에서 천성산까지 3000천배 시위가 있었고, 정부의 고속철도 노선 확정 후인 9월에는 부산역에서 천성산 화엄벌까지 삼보일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10월에는 도롱뇽의 친구들(원고 도롱뇽)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지만 이듬해인 2004년 4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였고, 항고와 재항고 역시 2004년 11월 고등법원과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공사 현장에서 반대 운동 중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건설사로부터 고소당했다. 2006년 이후에는 몇 차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고소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이 있었고, 그러한 소송은 2011년까지 이어졌다.

일개 천성산 산감이 10년간 행한 농성과 시위, 소송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키워드 '천성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국 종합일간지 기사는 367건에 달한다.[9] 특히 2003년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2003년 4분기에는 기사의 수가 급증하였다. 원만해·채백(2007)은 『조선일보』, 『한겨레』, 그리고 지역일간지 『부산일보』의 보도에 나타나는 뉴스 프레임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8) 그림 3·4 http://www.naewon.or.kr/menu02/menu0103

9) 이시윤(2018), 앞의 논문, 182쪽 각주 11 참조.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10)]

① ‘정책의 비효율성/무능’, ‘경제적 효율성’, ‘합리적 절차 중시’, ‘환경영향 평가 재시행’, ‘원론적 환경보전’, ‘생명 중시의 도덕성’, ‘일화적’ 프레임 등 총 7개의 프레임 추출
② 중앙일간지는 개발(조선일보)과 환경보전(한겨레)의 양 척도에서 자사의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
③ 지역 일간지는 지역 내 대립이 첨예한 환경문제에 대해 관망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
④ 지역 일간지는 도롱뇽 소송을 계기로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문제에 대해 반대하던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
⑤ 대상 신문 모두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과 도롱뇽 소송 등에 대해 지엽적으로 접근하는 ‘일화적’ 프레임을 주로 사용

천성산 환경운동과 관련된 각 언론사들의 입장이나 태도를 보면 이를 둘러싼 정부와 건설사, 시민사회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부딪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대로 당시의 갈등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개발의 효용성이라는 가치와 생태 보존이라는 가치가 충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또한 다수의 일반 시민이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동물권을 주장하는 등의 모습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나 그 사례를 전해들었을 뿐,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었다.

물론 그 논의 주제가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양비론적인 모습을 보인다던지, 천성산이라는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시킨다던지 하는 한계성 역시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일어났으며, 특히 지율스님의 극한 단식 투쟁과 소송에 반감을 가지고 이것을 불교계 외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교단 내부의 분위기 또한 있었다.

이후 불교관련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들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학계에서는 생태학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관련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율스님의 환경운동이야말로 피상적인 학문의 대상으로만 머물러있던 불교생태학이 사회 현상이라는 형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김방룡(2008)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불교와 환경문제의 만남은 가히 환상적

10) 원만해·채백(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 199～228쪽.

이다."이라고 표현하며, 불교생태운동과 환경을 둘러싼 불교담론들은 불교계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지지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다.[11] 그는 한국사회에서 환경과 생명을 주제로 한 담론이 형성된 것은 역시 서구 사상계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즉, 환경에 대한 담론이 불교계에 촉발하게 된 계기는 1960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교와의 결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12] 특히 사찰이 전국의 명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불교가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불교적 담론이 형성되는 것에 흥분된 화법을 숨기지 않았다.[13]

조은수(2011)는 지율스님의 환경운동에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붙여 생태와 젠더이슈까지 포괄하여 논하였다. 그는 한국의 환경운동사는 지율 이전과 지율 이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14] 특히 지율스님의 투쟁방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난 것은 스님이 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철 같은 의지와 비타협적인 비구니의 행동에 정부, 건설업계 모두가 당황했다고 하며 페미니즘의 프레임을 덧붙이고 있다.[15]

이도흠(2013)은 지율스님 등이 펼친 생명생태운동 및 평화운동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시민운동 진영에는 생태적 패러다임과 삶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16] 그는 또 이러한 운동은 불교적 생명론을 전 지구촌이 직면한 환경위기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참다운 보살행을 실천한 전범을 보여주었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핵심 사회문제는 전 지구차원의 환경위기, 신자유주의 모순, 폭력의 심화와 전쟁, 욕망의 과잉, 재현의 위기일 것인데, 한국 불교 사상은 이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논리와 대안을 함유하고 있다고도 했다.[17]

이후 지율스님의 행보는 아쉽게도 이전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대

---

11) 김방룡(2008), 「환경·생태·배아복제·페미니즘에 대한 불교적 담론에 대하여」, 『범한철학』 제48집, 267쪽.

12) 앞의 논문, 270쪽.

13) 앞의 논문, 268쪽.

14) 조은수(2011), 앞의 논문, 130쪽.

15) 조은수, 위의 논문, 131쪽.

16) 이도흠(2013), 「해방 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불교의 대응 및 지향점」, 『불교학연구』, 제37호(2013), 361쪽.

17) 이도흠(2013), 위의 논문, 368쪽.

선주자 문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2년에 있었고, 2015년도부터는 경북 영주 지역의 내성천 지킴이로 나서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주댐 철거 소송을 재기하기도 했으나 최근 2021년 1월 고등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지율스님은, 생명이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운동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밝히고 있다.[18]

> "...하지만 이 사회는 도롱뇽이라고 하는 작은 생명체에게 아직 관대 하지 못하며 이 문제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저는 이 풀기 어려운 문제의 답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환경운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을 자주하여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음과 양(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역할과 조화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음을 땅이라고 하고 양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힘은 역동적으로 그 힘은 수직적이고 파괴적이나 그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음의 힘은 텅 비고 고요하며 넓고 평탄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균등합니다. 낳고 기르는 지구적이고 모성적인 본능은 여성적인 역할입니다. 올해 초 100일 단식 중에 제가 느낀 것은, 저의 소생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는 무한하다고 하는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이 에너지는 누구나에게 평등 한 것으로 병들게 하거나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19]

2004년 가을, 우리나라에서 도롱뇽 재판과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으로 떠들썩했을 때, 하와이의 한 기상 관측소에서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Ⅲ. 마우나로아 관측소

미국 하와이 힐로 섬의 마우나로아(Mauna Loa)산 3396m 지점에는 마우나로아 관측소(Mauna Loa Observatory)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지구시스템연구소(ESRL)에서 운영 중인 이 관측소는 1958년 3월 29일부터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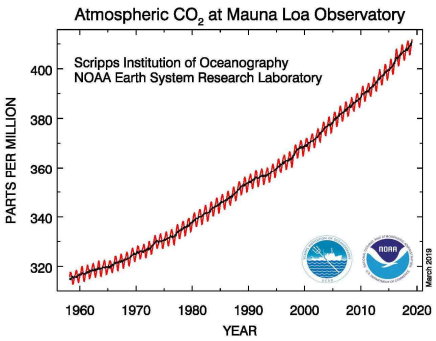
18) 조은수(2011), 앞의 논문, 132쪽.

19) 지율의 기조강연, 「천성산 도롱뇽을 위한 외로운 투쟁」중에, 조은수(2011), 앞의 논문, 139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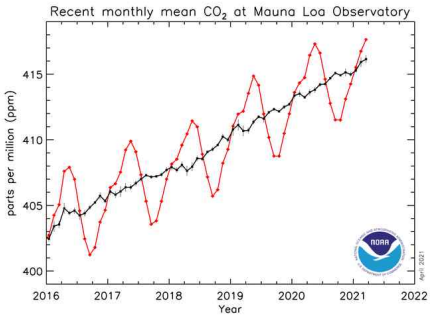
닭에 극지방과 함께 대기가 깨끗한 곳으로 손꼽히는 이곳 관측소는 미세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포착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림 6〉 마우나로아 관측소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관측한 결과, 그 증가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소위 '킬링 곡선(Keeling Curve)'은 이 관측을 주도한 학자 찰스 데이비드 킬링(Charles David Keeling)의 이름을 딴 것이다.[20] 킬링은 1958년부터 매일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였고, 계절적인 영향이 있지만 매년 그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의 증거이다. 킬링은 2005년 사망했지만, 마우나로아에서는 오늘도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있다.



〈그림 7〉 마우나로아 CO_2 측정 그래프(킬링 곡선)



〈그림 8〉 2016년 이후 CO_2 변화 그래프

20) '킬링곡선'이라고 할 때 '킬링'의 스펠링은 'killing'이 아니라 'keeling'이다.

그림 6과 7의 그래프는[21] 공히 시간이 흐를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양쪽 그래프 모두 검정색 선은 분기별 평균치를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월별 측정치를 나타낸다. 측정을 시작한 1958년 이후 현재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되는 수치 350ppm을 돌파하여 2021년 3월 현재 417.64ppm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1년 전인 2020년 3월의 수치 414.74ppm보다 2.9ppm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2100년 예상 측정 수치는 936ppm에 이르고, 그것은 기온의 경우 3.7도 증가, 해수면의 경우 63cm의 상승을 의미한다.[22]

여기서 위의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 수치의 증가 곡선에 어떤 의문이 제기된다. 그림 7의 그래프에서 2019～2020년 구간과 2020～2021년 구간에 나타난 곡선의 각도를 살펴보면 매년의 평균적인 증가폭이 나타내는 각도와 큰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20～2021년 구간은 현재 우리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시기와 겹친다. 그렇다면 CO2 농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해보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류가 실행 중인 기존 방식의 생산 활동이 약간 주춤거렸다고 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의 이산화탄소 증가 추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지구시스템연구소(ESRL)에서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배출량이 많게는 25%까지 낮아진다면 마우나로아에서 3월 월평균 이산화탄소(CO_2)가 약 0.2ppm 정도 낮아지고, 4월에는 0.2ppm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국제 에너지 기구는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3]

이 내용에 따르면 킬링곡선에 유의미한 궤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¼ 규모까지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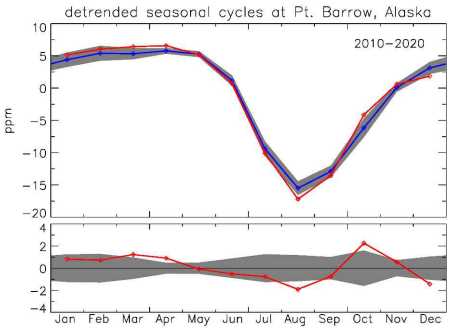
---

21) https://www.esrl.noaa.gov/gmd/ccgg/trends/mlo.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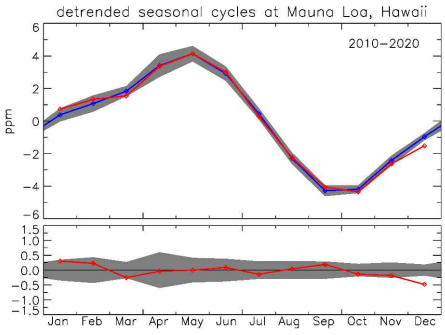
22) 이 수치를 한반도의 폭염일수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현재 폭염일수는 평균 7일인데 비해 2100년경에는 30일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평양의 평균 기온이 현재 서귀포의 평균 기온인 16.6도와 유사해진다는 의미이다.

23) https://www.esrl.noaa.gov/gmd/ccgg/covid2.html, “Can we see a change in the CO2 record because of COVID-19?”

해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소비 수준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량은 8%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3배 정도 생산이 감축되어야 이산화탄소의 유의미한 감소량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산업생산 체계 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조차도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림 9〉 2010~2020 알래스카 측정치



〈그림 10〉 2010~2020 마우나로아 측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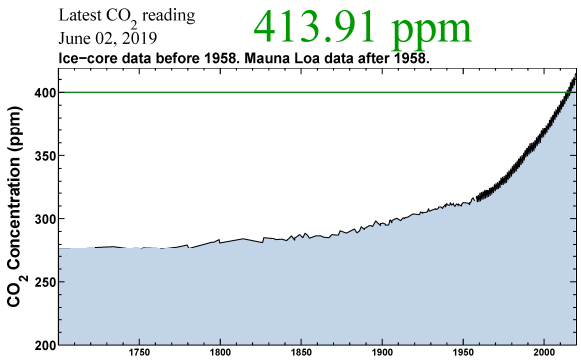
그림 8과 9의 그래프로 나타낸 측정 결과를 보아도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드라마틱한 이산화탄소 수치의 하락은 보이지 않는다. 파란색 선은 2010년~2020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회색 영역은 2010년~2020년의 월별 변화를 범위로 나타내며, 빨간색 선은 2020년 수치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는 2020년 역시 기존의 월별 변화 패턴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빨간색 선이 회색 영역의 아랫부분에 놓이는 경우, 즉 수치가 아주 낮았을 때보다도 더 낮게 측정된 월은 마우나로아의 경우 2020년 12월, 알래스카의 경우 2020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온도의 변화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온도의 변화는 봄철 꽃이 피는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24] 꽃이 평년보다 조금 빨리 피고, 조금 늦게 피면 사람

24) 1999년 이후, 가장 극적인 개화시기의 변화를 나타낸 해는 2002년과 2011년도이다. 2002년은 엘리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2.5도 높아진 봄철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난 해로 개화종수의 99%가 40년 전(1968~1975년)보다 빨리 개화했으며, 2010년의 경우, 2월 평균기온은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1.7도 높았던 반면 3~4월 기온은 평균 1.8도 낮은 영향으로 총 분석 종수의 63%가 늦은 개화를 나타냈다. 국립산림과학원(2012), 『기후변화, 숲 그리고 인간』, 연구신서 제53호, 189쪽.

들은 꽃놀이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늦어지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에 기대어 사는 곤충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곤충은 식물과 매우 밀접하게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육 변화는 곤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식물 역시 수분(受粉)을 해 줄 곤충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역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주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작은 변화로부터 육상 생태계 전체의 교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특정한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화를 일으켜 종국에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 기후 변화는 현재의 풍토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재앙이 되겠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큰 범위, 보다 긴 시간에서 항상성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 모든 개인과 집단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산업 생산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풍부한 자원의 공급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림 11〉 17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킬링곡선

화석연료를 사용해 자원의 대량 가공이 가능해진 1800년대의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혜택은 그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발전된 놀라운 과학 기술들은 짧은 기간 내에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박하게 축적되는 곡선으로 표현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죽음의 곡선이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자연조건에는 적응하는 한편, 자연이 베

푸는 혜택을 활용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생물이다.[25]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존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인간은 바뀐 조건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조건에 적응하며 살아갈 인간의 숫자는 현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 도롱뇽 재판과 지구 온난화

도롱뇽 재판	사건	지구 온난화
천성산 원효터널	원인	산업 생산
대한민국에서 5번째 긴 터널	특징	약 79억의 인구
부산역～동대구역 38분[26]	혜택	물과 식량, 자원, 문화, 문명
고속철도 이용객	수혜	전 인류
천성산의 생태(미확인)	변화	지구의 CO_2 농도 → 온도
약 8년(2002～2010)	기간	약 300년(1800～2100)
천성산의 생물들	피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여기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보았다. ‘도롱뇽 재판’과 ‘지구 온난화’인데, 그 기간이나 결과가 길고 짧은 차이, 피해의 규모가 국지적이냐 전 지구적이냐 하는 차이를 보일뿐 본질적으로는 같다. 개발이나 생산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해당 생태계의 변화(절멸을 포함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롱뇽 재판’의 경우, 국지적인 피해만이 예상되므로 개발 이익에 따른 합리적인 모색이라는 취지의 접근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듯 보이지만, ‘지구 온난화’는 그런 접근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 규모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수 세기에 걸쳐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이 인류 전체가 향유하고자 하는 문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시점의 도래가 아직까지는 도래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외시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람들은 비생물과 생물 작용으로 생산되거나 준비되는 식량과 물을 얻

25) 이도원(2013),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 숲 관리 방식」,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533호, 21쪽.

26) 당시 천성산에 터널을 뚫지 않고 우회하면 22～26분이 더 소요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부선 기존 구간의 64분에서 새로운 선로를 통하면 26분가량 줄어든 38분이 걸린다는 것이고, 터널의 유무에 따라서는 여기에 몇 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다.

고, 완화되는 기후 조건에서 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휴양과 종교를 포함하는 문화 활동을 영위한다.[27] 그러나 2100년을 약 80년 정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문화를 쌓아가는 인류의 활동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Ⅳ. 탄소발자국과 다크데이터

이상에서 살펴본 기후 변화의 위기상황에 잘 들어맞는 불교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업(共業, sādhāraṇa-karma)이라는 개념이다. 업(karma)은 불교의 핵심교리 중 하나인데, 몸으로 이루어지거나, 말로 이루어지거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하는 이론이다.

> 비구들이여, 내가 말하는 업은 의도(cetanā)이다. 의도하여 몸(kāya), 말(vacī), 뜻(manas)을 통해 업을 짓는다.[28]

> 비구들이여, 중생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어떤 업을 지으면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된다.[29]

업은 앞으로 있을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기억의 형태로 잠복했다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발동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업이 형성될 때에는 반드시 의도(cetanā)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 의도가 모든 조건을 결정짓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업과 악업으로 나눌 수 있지만,[30] 거기에도 공통적으로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업이든

---

27) 이도원(2013), 앞의 논문, 22쪽.

28) Aṅguttara-Nikāya. Vol. III, edited by R. Morris and E. Hardy, London: PTS, 1885-1900 (Reprinted 1958-1976). p.415. cetanāhaṃ bhikkhave kammaṃ vadāmi. cetayitvā kammaṃ karoti kāyena vācāya manasā.

29) Majjhima-Nikāya. Vol. III, edited by V. Trencker, R. Chalmers and Mrs. Rhys Davids, London: PTS, 1888-1899(Reprinted 1977-1979), pp.203-206. kammassakā, bhikkhave sattā kammadāyādā kammayonī kammabandhū kammapṭisaraṇā, yaṃ kammaṃ karonti kalyāṇaṃ vā pāpa kaṃ vām tassa dāyādā bhavanti.

악업이든 또 다른 업의 조건이 될 뿐이다. 하지만 초기불교에서는 이러한 업과 그 결과(vipāka)를 철저히 개인의 영역에 한정하는 자업(自業, kammassakatā)으로만 다룬 반면,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공업(共業)이다. 공업 이론의 대두는 사실상 업을 개인적 책임으로만 해석하는 전통적인 업 이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오늘날의 대승불교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31]

불교의 공업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단지 우연히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면서 받는 조건이 아니다. 자업은 개인이 처한 조건, 즉 출생의 상태, 인연의 결합, 새로운 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양상을 띤다. 하지만 중생들은[32]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인 해탈은 공업의 해결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즉, 중생들의 집합과 그 집합에서 일으키는 공동의 책임인 공업을 통해 이 세계는 형성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중생들 모두가 함께 받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 불교의 적극적 사회 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 무엇을 공업계(共業界)라고 부르는가. 만일 요소가 업에 따라 변화하면 공업이 생겨 함께 머물고 함께 사라진다. 이것을 공업계라고 이름한다. 무엇을 불공업계(不共業界)라고 부르는가. 만일 요소가 업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공업이 생기지 않아 함께 머물지 않고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불공업계라고 이름한다.[33]

공업의 출발은 중생들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함께 받는 것에 있었다. 그렇게 공업으로 인해 세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변화를 끼치게 되는 상황을 공업계(共業界)라고 부른 것이다. 환경과 관련된 경제용어 가운데 '탄소발자국'

---

30) 선업을 백업(śukla), 악업을 흑업(kṛṣṇa)라고 한다. 이밖에 회색업과 비백비흑업이 있다.

31) 김한상(2014), 「테라와다(Theravāda)의 관점에서 본 공업(共業) : 니까야와 아비담마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42집, 258쪽.

32) 중생은 감각기관을 지니고 있는 생명체의 총칭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의 여섯 가지이다. 따라서 감각기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 고양이, 금붕어, 개미는 중생이지만, 바위는 중생이 아니다. 식물에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있어 여기에서는 언급을 보류한다.

33) 『사리불아비담론』 7권(ABC, K0969 v29, p.79a09-a12) 云何共業界？若法隨業轉, 共業生共住共滅, 是名共業界。云何不共業界？若法不隨業轉, 不共業生不共住不共滅, 是名不共業界。

(carbon footprint)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의 일상 활동이나 상품의 생산 활동, 소비 활동 각각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kg 단위나 심어야 하는 나무의 수로 표시하는 것이다. 아침 준비와 도시가스 사용 2kg, 출퇴근 왕복 버스 3.2kg, 아이 2명 유치원 등하원 자동차 운행 10kg, 컴퓨터 사용 2.6kg 등, 우리가 일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탄소를 유발하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즉, 공업과 탄소발자국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묻건대, 무엇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함께 무너지거나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가. 답하건대 모든 중생의 업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이곳에서 공업을 증대시키면 세계가 곧 이루어지고, 만일 공업이 다하면 세계는 곧 무너진다. 또한 중생들이 저곳에서 정업을 증대시키면 이 세계가 곧 무너지고, 만일 정업이 소멸하면 이 세계는 곧 이루어진다.[34]

인터넷 환경 역시 대표적인 공업계(共業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사용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여 저장하게 되고, 이것이 인터넷의 수많은 요소 중 하나를 이룬다. 즉, 중생의 공업이 인터넷이라는 공업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터넷은 현실 세계와는 별개의 가상세계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에너지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이처럼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가 배출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받는다. 특히 가치가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인 '다크데이터'는 공업계인 인터넷에 불필요하게 저장되어 있으면서 대량의 탄소를 유발한다.

> 즉 일체 중생의 업의 증상력에 의해 허공중에는 점차 미세한 바람이 생겨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기세간이 장차 이루어지려고 하는 조짐이다. 그러다 바람이 점차 증가하여 왕성해지고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은 풍륜·수륜·금륜 등이 성립한다. 그러나 처음에 대범천의 궁전 내지 야마천의 궁전을 성립시키고 그 후에 풍륜 등을 일으키니, 이것을 바로 외적인 기세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35]

---

34) 『아비달마대비바사론』 134권(ABC, K0952 v26, p.1019c02-c07) 問：何故一切世界不俱壞俱成？答：以諸有情業不等故。謂有情類於此處所，共業增長，世界便成，共業若盡，世界便壞。又有情類於彼處所，淨業若增，此界便壞，淨業若減，此界便成。

『아비달마구사론』에 따르면 중생들이 거주하는 이 세계는 중생들이 일으키는 업의 작용을 통해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중생들의 공업이 계기가 되어 해와 달, 바다와 대지가 생기는데, 공업을 통해 성립했듯이 다시 공업을 통해 변화하고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세한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이 점차 증가해 왕성해지면 '풍륜·수륜·금륜' 등 세계를 떠받치는 토대가 새로이 성립한다는 표현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지구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현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공교롭다.

Ⅴ. 기후 위기의 대처와 거사불교

불교나 인도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오염은 인간의 도덕적 오염의 외적인 발현에 지나지 않는다.[36] 도롱뇽 재판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제기한 것도 이제 20여 년이 흘렀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개발 논리를 통한 이익의 창출 욕구는 여전하다. 국지적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제 새롭게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것은 기후 위기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한다.[37]

> 생각하고 살피는 작용은 마땅히 심사(尋伺)인데, 어떻게 정(定)을 설하면서 생각하고 살핀다고 할 수 있는가?[38]

원효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은 명상(定) 중에 살피는 대상의 심사(尋伺)에 대해 언급한다. 심(尋)은 거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감각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이나 느낌과 같은 거친 것을 말한다. 사(伺)는 미세

---

35) 『아비달마구사론』 12권(ABC, K0955 v27, p.542a09-a13) 一切有情業增上力空中。漸有微細, 風生是器世間將成、前、相風漸。增盛成立如前所說, 風輪水金輪, 等然初成立。大梵王宮乃至夜摩。宮後起風輪等是謂, 成立外器世間

36) 이거룡(2005), 「불교와 환경위기」, 『한국불교학』 42, 5쪽.

37) 허남결(2009)은 인간 사회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육식문화에 대해 재고해야 함을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에 개별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소모되는 자원에 대해 밝힘으로써 음식에 대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한다. 허남결(2009), 「환경윤리의 관점과 육식문화의 반성 ―육식 선호의 습관을 포기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고려할 때인가?―」, 『불교연구』 30 참조.

38) 『금강삼매경론』 1권(ABC, K1501 v45, p.62a09-a10), 思察之用, 應是尋伺, 云何說定爲思察耶?

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감각을 통해서는 관찰할 수 없는 개념이나 감정과 같은 미세한 것을 말한다. 환경문제가 심(尋)이라면 기후 위기는 사(伺)이다. 환경문제는 가시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며, 국지적인 범위에서 매우 강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에 반해 기후 위기는 가시적인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지며, 광범위한 곳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수행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거친 것과 미세한 것에 대한 대응은 달리할 수밖에 없다.

천성산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지율스님의 강렬한 활동은 거친 것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일지도 모르겠다. 그 시도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결국 좌절되는 듯 했지만, 이후 많은 유사한 사안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입장과 태도가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지율스님은 천성산 산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성실히 이행한 수행납자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수행터를 지키고, 그곳을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류들의 안식처를 지키려는 노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자연스러운 본분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력에 감화된 대중들은 향을 쌌던 종이에 그 향기가 베어나듯 그와 같은 의식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또다시 지율스님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만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거친 것 또한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미세한 것으로 그 문제의 주된 흐름이 넘어왔기 때문이다. 차곡차곡 진행되는 기후 위기라는 모래시계는 이제 몇 줌 남지 않은 모래알만이 위쪽에 남아있을 뿐이다.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 유마힐이 말했다. “어리석음[痴]과 탐심[有愛]으로부터 나의 병은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사라진다면 그 때 나의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生死)에 들어섰으니, 생사가 있는 곳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떠난다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장자(長者)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면 그 부모도 병을 앓고, 만약 아들의 병이 나으면 부모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내 자식 대하듯 합니다.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으며,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낫습니다.” 또 말했다.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났느냐면, 보살이 병든 것은 드넓은 자비[大悲]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39]

불교의 신행과 관련해 거사불교(居士佛敎)라는 것이 있다. 거사(居士)는 가장(家長)을 의미하는데, 초기불교에서 출가자가 신행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거사불교는 비출가자에게로 신앙의 중심이 옮겨갔다가는 것을 의미한다. 유마거사는 그런 거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행적을 기록한 경전인『유마힐소설경』은 유마거사가 병에 들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사를 찾아가 문안을 드리라고 주문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인용된 내용은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문안을 다녀오라 요청하고, 문수보살은 그 청을 따를 수밖에 없어 유마거사를 만나 나누는 대화를 담고 있다.

거사불교의 핵심은 소수의 출가자 위주의 신행이 아니라 그것이 대중에게로 보편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출가 여부의 차이가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러한 진리를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사 역시 깨달음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쌓을 수 있다. 깨달음이 바라문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사불교는 기후 위기의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후 위기에 직면해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가나 학자, 전문가 등 특정인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반 대중에게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불교가 전파된 지 1,650년이 지난 지금, 한국불교는 그 동안 쌓아온 중대한 지혜와 관리 방식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불교의 신행을 주도하는 일반 대중의 저변을 확대하여 인류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Aṅguttara-Nikāya. Vol. Ⅲ, edited by R. Morris and E. Hardy, London: PTS, 1885-1900(Reprinted 1958-1976).

Majjhima-Nikāya. Vol. Ⅲ, edited by V. Trencker, R. Chalmers and Mrs. Rhys Davids, London: PTS, 1888-1899(Reprinted 1977-1979).

39)『유마힐소설경』2권(ABC, K0119 v9, p.987c02), 維摩詰言："從癡有愛，則我病生；以一切衆生病，是故我病；若一切衆生病滅，則我病滅。所以者何？菩薩爲衆生故入生死，有生死則有病；若衆生得離病者，則菩薩無復病。譬如長者，唯有一子，其子得病，父母亦病。若子病愈，父母亦愈。菩薩如是，於諸衆生，愛之若子；衆生病則菩薩病，衆生病愈，菩薩亦愈。又言是疾，何所因起？菩薩病者，以大悲起。"

『사리불아비담론』 7권(ABC, K0969 v29, p.79a09-a12)
『아비달마대비바사론』 134권(ABC, K0952 v26, p.1019c02-c07)
『아비달마구사론』 12권(ABC, K0955 v27, p.542a09-a13)
『금강삼매경론』 1권(ABC, K1501 v45, p.62a09-a10)
『유마힐소설경』 2권(ABC, K0119 v9, p.987c02)

“천성산 꼬리치레도롱뇽 어디로 갔을까”, 『중앙일보』, 2014년 10월 29일.
“[참성단] ‘분당 맹꽁이’의 반격”, 『경인일보』, 2021년 2월 17일.

국립산림과학원(2012), 『기후변화, 숲 그리고 인간』, 연구신서 제53호.
김방룡(2008), 「환경·생태·배아복제·페미니즘에 대한 불교적 담론에 대하여」, 『범한철학』 제48집, 265～297쪽.
김한상(2014), 「테라와다(Theravāda)의 관점에서 본 공업(共業) : 니까야와 아비담마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42집, 251～289쪽.
원만해·채백(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 199～228쪽.
이거룡(2005), 「불교와 환경위기」, 『한국불교학』 42, 205～226쪽.
이도원(2013),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 숲 관리 방식」,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533호, 17～32쪽.
이도흠(2013), 「해방 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불교의 대응 및 지향점」, 『불교학연구』, 제37호(2013), 335～374쪽.
이시윤(2018), 「‘두개의 운동’으로서의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종교시민운동 축의 복원과 시민환경운동과의 관계 분석」,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1호, 169～215쪽.
조은수(2011), 「지율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 『철학사상』 41, 127～149쪽.
허남결(2009), 「환경윤리의 관점과 육식문화의 반성 ―육식 선호의 습관을 포기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고려할 때인가?―」, 『불교연구』 30, 257～307쪽

Abstract

There is a country for salamander: the climate crisis and the handling of Buddhism

Ahn, Pilseop
(Dongguk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m or Indian Thought,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s nothing more than a manifestation of human moral pollution. It has now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Trial of Salamander introduced a new Discourse to our society. Many things have changed, but the desire to generate profits through development logic remains.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and checking local environmental issues still stands. But now something new to look at and pay attention to is coming ; that is Climate Crisis. And it calls for a new Paradigm. Faced with Climate Crisis, we should not again seek symbolic figures like Venerable Jiwul. Roughness(vitarka) still exists, but now the main stream of the problem is over to the minute(vicāra). It has been 1,650 years since Buddhism was introduced to our country. Korean Buddhism must share with society the crucial wisdom and management that it has built up. And we need to expand the base of the general public leading Buddhist practices. Through this, we must be fully prepared to respond to a crisis that mankind has never experienced.

Key words : salamander, venerable Jiwul, Mauna Loa, covid-19, climate crisis, CO_2, sādhāraṇa-karma, gṛhaspati, carbon footprint, dark data

토론문

도롱뇽을 위한 나라는 있다 : 기후 위기와 불교의 대처

이 해 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먼저 기후위기 시대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작금의 기후위기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참으로 큽니다. 종교란 본디 갈등과 혼돈의 예토(穢土) 속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안락과 행복을 전해주며 정토(淨土)를 일구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종교가 진정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교가 본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물질에 갇히고, 자기종교에 갇히고, 종교마저도 발전의 논리에 휩쌓이면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원력을 붙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 종교란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이웃과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는 자업(自業)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공업(共業)의 문제를 풀어갈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자업, 즉 개인의 업은 각자가 알아서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업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맞대야 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공업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고 실천을 하면서 그 공업의 과보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업의 과보는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금의 공업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문제, 석탄 및 핵발전소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 외에도 다양한 공업의 문제가 놓여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맞닥뜨려 있는 부분은 바로 환경의제입니다. 환경의제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풀어갈 수도 있지만 종교의 역할로 끌어들여서 논의의 장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롱뇽을 위한 나라는 있다: 기후 위기와 불교의 대처’라는 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지율스님을 실천의 모델로 세웠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1년 내원사 산감소임 당시 천성산 터널공사 현장을 목도하고 본격 반대운동에 뛰어듭니다. 청와대 앞 100일 단식농성을 비롯 다섯 차례의 단식농성을 하고, 삼보일배 등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환경을 대중 속으로 깊숙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03년 10월 천성산에 집단서식하고 있는 ‘도롱뇽’을 원고의 주체로 세워 천성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대원법에서 이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율스님의 도롱뇽 소송은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비구니 지율스님과 도롱뇽은 2002년부터 2006년 소송을 마칠 때까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롱뇽 소송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맹꽁이, 팔색조, 긴머리딱새, 산양, 청개구리 등의 서식지로 인해 여러 곳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지율스님이 20년 전에 던져준 화두가 오늘에 이어진 귀한 결과물이라 여겨집니다.

“한국사회에서 개발의 효용성이라는 가치와 생태 보존이라는 가치가 충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또한 다수의 일반 시민이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동물권을 주장하는 등의 모습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나 그 사례를 전해들었을 뿐,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었다.” 이렇듯 자연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져준 인간중심의 개발논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때마침 학계에서는 생태학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관련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율스님의 환경운동이야말로 피상적인 학문의 대상으로만 머물러있던 불교생태학이 사회 현상이라는 형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이는 지율스님의 천성산 반대운동이 불교환경운동의 사회현상의 행태로 처음 나타났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1년 도법스님께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인드라망생명공동체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경스님 또한 2001년 9월부터 불교환경연대를 조직해 상임대표를 맡아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찌보면 지율스님뿐 아니라 도법스님과 수경스님이 천성산, 지리산, 새만금, 4대강 등 개발논리를 앞세워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거대한 사슬에 맞서 저항했던 삼보일배, 오체투지, 단식농성 등의 운동이 불교환경운동의 새로운 시작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기후변화는 현재의 풍토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재앙이 되겠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큰 범위, 보다 긴 시간에서 항상

성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 모든 개인과 집단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산업 생산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풍부한 자원의 공급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공업으로 함께 풀어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인 해탈은 공업의 해결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즉, 중생들의 집합과 그 집합에서 일으키는 공동의 책임인 공업을 통해 이 세계는 형성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중생들 모두가 함께 받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 불교의 적극적 사회 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공업으로 함께 해결해야 함을 직시하고, 공업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참된 해탈의 길이 되며, 불교의 사회참여의 근거를 이 공업에서 찾은 것은 현장활동을 해가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공업과 탄소발자국을 같은 개념으로 바라본 것이 인상 깊습니다.

“사람의 일상 활동이나 상품의 생산 활동, 소비 활동 각각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kg 단위나 심어야 하는 나무의 수로 표시하는 것이다. 아침 준비와 도시가스 사용 2kg, 출퇴근 왕복 버스 3.2kg, 아이 2명 유치원 등하원 자동차 운행 10kg, 컴퓨터 사용 2.6kg 등, 우리가 일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탄소를 유발하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공업도 함께 짓고 함께 받고, 탄소발자국도 함께 만들고 함께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기후변화, 작금의 기후위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적시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교리에 바탕을 둔 해법과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사불교(居士佛敎)를 끌어들여 “거사불교의 핵심은 소수의 출가자 위주의 신행이 아니라 그것이 대중에게로 보편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출가 여부의 차이가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러한 진리를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사 역시 깨달음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쌓을 수 있다. 깨달음이 바라문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거사불교를 통해 출재가를 분리 인식하게 하고, 거사불교가 곧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한국불교의 대안으로 주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